

완도 해양바이오소재 공급기지 구축 발돋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지난해 개소...도내 유일 해조류 소재 화장품 생산지원 시설도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완도에 해조류 기반 바이오 소재·제품 개발과 대량 생산 등을 골자로 하는 '해조류 특화 거점지역'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완도군은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남도내에서 유일한 '해조류 소재 화장품

생산지원 시설'도 구축됐다.

완도군은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해조류에서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소재를 공급하는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은 설계가 마무리 돼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한다.

완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시설과 제품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원스톱 산업구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



완도군은 15일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완도군 제공)

지가 구축되면 연구·개발, 제조·생산, 산업화 등 각 분야가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강진군, 인생 2막 꽃피우는 힘찬 첫 걸음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학식

강진군이 지난 12일 체류형귀농사관학교 대강당에서 입학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군의원, 지역사회 단체 임원, 귀농인협의회, 마을 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강진군 농산물로 제작된 체소 다발을 입학생들에게 전달해 입교 축하를 전했다.

학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폐교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 지난 2019년 문을 열었다.

올해 6기 입학생은 9세대 15명으로 11월까지 거주하며 기초 영농 교육 및 지역 정착을 돕는 융화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기 12세대 중 8세대가 강진군에 정착하는 등 학교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귀농에 큰 도움을 주

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대별로 배정된 80㎡의 텃밭 운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직접 실습하며 영농 경험을 쌓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입학부터 수료까지 희망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영농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군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교육 기간동안 농촌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귀농인의 체계적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목탐색 선정 과정인 주작목 배움교실, 선농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귀농멘토-멘터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농업현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관리센터' 건립

기존 시설 노후화·동물 복지 기준 확대...2026년 준공 목표 사업비 60억 투입

진도군은 진도개테마파크 일대에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양육시설의 노후화와 동물 복지·보호 기준에 따른 규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국고 지원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천연기념물 진도개보존관리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도비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체면적 4488㎡규모의 부지에 견사동, 관리동, 심사장, 운동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의 안전한 양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진도개 보호·관

리체계를 개선해 진도개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진도군은 천연기념물인 진도개 1400여마리를 보호·관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진도개보존관리센터 건립과 진도개 관리 방안 개선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실현과 진도개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건립으로 진도개를 보존·보호하고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동물교감으로 정서함양·체력 향상

해남군이 관내 학생들의 재능 개발과 특기 지원을 위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장에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일반승마 203명, 사회공익 생활승마 17명, 재활승마 34명 등 총 254명이다.

승마 체험일수는 1인당 10회이며,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이다. 체험기간은 4~11월로 예정 있다.

일반승마는 9만6,000원의 본인 부담이 있으며, 사회 공익승마 체험인 생활승마와 재활승마는 전액 무료다.

사회공익 승마체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장애학생 등으로 소속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통해 받는다.

군 관계자는 "승마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장 발달을 이끄는 스포츠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장흥군, 청결한 식당 만들기 '주방클린업' 지원사업 추진

주방후드·가스렌지 등 청소비용 50%지원

장흥군은 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상으로 주방클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방클린업 지원사업은 주방후드, 가스렌지, 바닥, 벽면 청소 등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역 5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별 최대 50만원까지 청소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장흥군에 영업신고 후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업소 선정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확정 지을 예정이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음식점 임신티이블 및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에게 편의도 높이고 있다.

장흥군은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과 지속적인 식품위생 점검 등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음식점들이 맛과 친절, 청결까지 갖추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